

조선왕조실록 포쇄, 전주서 재현

시, 5일 한옥마을 일원서... 경기전 내 전주사고서 진행 관광객 이해 돕기 위한 설명·창작무용 포쇄무 공연도

조선왕조실록을 습기와 충해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바람에 말리는 '조선왕조실록 포쇄'가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에서 재현된다. 조선왕조실록은 국보 제151호이자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찬란한 문화유산으로서, 전주는 과거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에 보관했던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유일한 도시이기도 하다.

전주시는 오는 5일 한옥마을과 경기전 내 전주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책을 말려 습기를 제거하는 포쇄의 재현행사를 연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조선왕조실록 포쇄 행사는 조선왕조실록 포쇄 사관행렬과 기념식 및 영접례, 포쇄재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운영된다.

먼저, 조선왕조실록 포쇄 사관행렬은 포쇄를 시행하러는 임금의 명을 받고 한양에서 내려오는 사관과 그 일행의 행렬을 재현하는 것으로써, 이날 사관행렬은 은행로와 최명희길, 한지길을 거쳐 태조로로 진입해 경기전 내 전주사고로 향하게 된다. 사관행렬은 은행로 사거리와 경기전 앞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과 포토타입도 가질 계획이다.

이어, 조선왕조실록의 포쇄를 축하하는 간략한 기념식을 진행하고, 전주사고에 포쇄사관행렬이 도착하면 전주부윤이 임금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관을 맞이하는 영접례와 함께 본격적인 조선왕조실록 포쇄가 재현된다.

메인 행사인 실록의 포쇄는 전주사고 앞에서 진행된다. 사관과 전주부윤 일행이 4배한 후 사관일행이 사고 안에 들어가 실록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교생들을 시켜서 실록을 사고 밖으로 꺼낸다. 이후 실록에서 조선왕조실록을 꺼내서 바람에 말리는 작업을 시행하고, 말리는 작업이 끝나면

천궁 및 창포가투가 든 자루를 실록에 넣고 초추지 및 붉은색 보자기를 실록에 바닥에 놓는다. 실록에 조선왕조실록을 넣고 보자기로 감싼 다음 자물쇠를 채우고 종이를 붙여 사관이 수결(手決)한다. 이후 사관이 실록의 실록 보관 사항과 포쇄 과정에 대한 보고서인 형지안(形止案)을 작성하고, 실록을 사고에 다시 넣은 다음 사고 외문에 자물쇠를 채워 종이를 붙여 사관이 수결한다. 마지막으로 포쇄인원들이 전주사고 앞에서 4배하면서 조선왕조실록 포쇄 행사를 모두 마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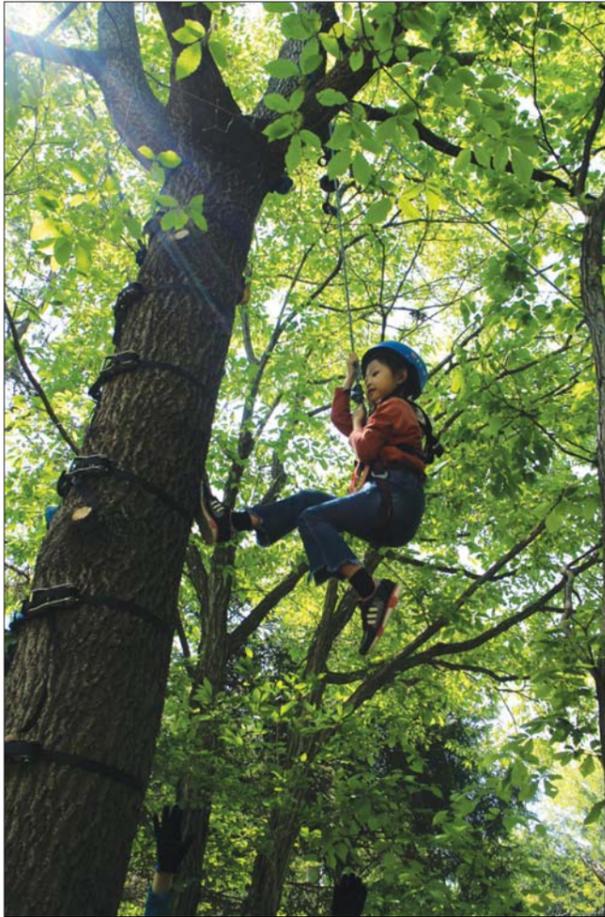
특히, 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 재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포쇄 전 과정에 설명을 곁들이고, 포쇄를 주제로 한 창작 판소리인 '포쇄가(歌)'와 포쇄를 모티브로 창작한 무용공연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행사에 출연하고 있는 한옥마을 어르신 취타대가 사관행렬에 참여하고, 행렬 의장대에 도내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전주시민들의 행사 참여를 확대했다.

시는 이번 실록 포쇄 재현행사를 통해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도시이자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실록 포쇄행사를 재현한 문화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실록 포쇄를 전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로 만들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의 도시이자, 감영목판이나 한글교전소설 등 완판본이라는 책을 찍어낸 출판의 도시"라며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는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포쇄: 습기를 제거해 충해를 막을 수 있도록 책을 말리는 것"



스릴있는 나무타기 체험 전주시는 '함께 그린(Green)숲 작은도서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에서 '나무오르기(Tee Climbing)'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욕구 충족

전주시, 무인항공교육원 등과 협약

전주시가 민간 직업교육시설과 손을 맞잡고 학교밖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을 돕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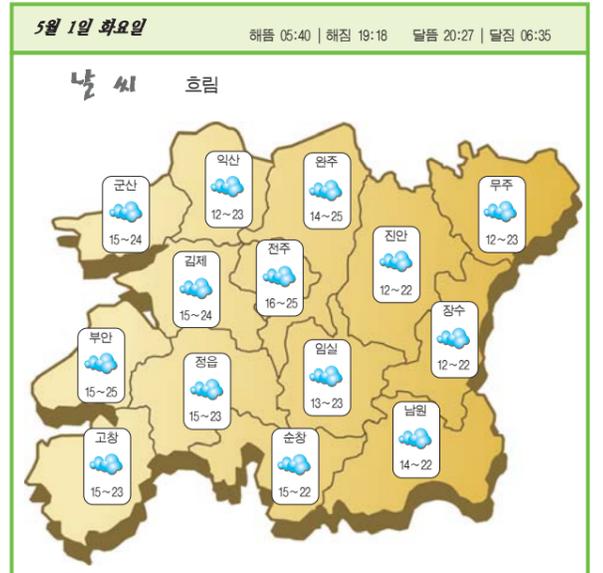
시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주YWCA)가 운영하는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30일 전북무인항공교육원(원장 김창수), 전주진폐선학원(원장 김현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무인항공교육원은 이날 협약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인 직업인 멘토링&직업 체험 프로그램인 '스타트 워 멘토'를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주진폐선학원은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캘린지업'의 운영을 도우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향후 드론 자격증취득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패션에 대해 배우보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사회진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욕구를 반영해 도움을 주시는 기관들이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김승환 교육감, 3선 도전 공식화

“혁신교육 완성할 것”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사진)이 지난 30일 6·13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혁신교육을 완성하고, 미래 백년교육을 준비하겠다”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두 번의 선거 모두 여러분이 모아주시 힘으로 전북교육감에 당선됐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안으로는 넓은 관행과 부조리를 청산하고, 밖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들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지난 8년간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선생님이 존중받고,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존치·통제·체벌·청탁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말끔히 지우고, 민주·인권·자유·희망과 같은 학교 본연의 색깔을 되살려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고교 의무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앙정부 교육권한 배분,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신입생 우선선발 폐지 등은 이미 전북교육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제안한 정책”이라며 “전북교육의 성공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4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제가 다시 전북교육



감이 되면 문재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북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 고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초·중·고 국내 수학여행비, 신입생 교복비 전액, 고교학교운영지원비 등은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속 추진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놀이형 돌봄서비스 제공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진로교육 다양화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확대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